

# 도내 정신병원 입원 74% 강제로

### 2014년 기준... 인권침해 방지 등 보완책 필요

정신병원 입원자 10명 중 7명은 강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하는 폐해를 개선해야 하지만 제도적 보완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강제입원의 경우 비 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인권 침해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범죄 수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

안)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환자수는 2014년 4만 7,785명(67.4%)으로 자의입원환자 수 2만2,974명(32.4%)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3년 강제입원환자수 역시 4만19,026명(70.5%)으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은 2011년 50,919명, 2012년 50,736명 등 지속

적으로 높았다. 여기에 시장·군수·구청장 등 가족의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된 환자까지 더하면 통계치는 올라간다. 시도별 강제입원율(2014년 기준)은 충남이 83%로 가장 높았고 광주(78.6%), 전북(73.7%)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입원환자수는 경기(14,711명), 경남(9,256명), 부산(5,148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가족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보호의무자가 강제 입원 시킬수 있는 사유는 미비한 제도 때문.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소견이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허용하고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원조치가 가능하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강제입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 공개 변론 때문에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강제입원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 군산 남성 변사자 신원 확인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지난 7일 발견된 남성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9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변사자 지문 분석을 통해 확인된 변사자 50대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7일 어지럼증과 무릎 통증을 호소해 군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가 없어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 병원복을 입은 채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변사자 A씨 발견 당시 양 손목과 목 근처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저흔이 발견된 점에 미뤄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진수 기자

## 생활고에 PC방서 금품 훔쳐

청소년자립원에서 퇴소한 뒤 생활고에 PC방을 전전하며 금품을 훔쳐 생계를 이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9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PC방에서 삼십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19)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달 23일 익산시 고현로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에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군은 지난달 4일부터 한 달간 익산과 전주, 대전지역 PC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현금 23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아버지가 별세한 후 어머니마저 행방불명되자 전주의 한 청소년 자립원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자립원을 퇴소한 뒤 친구의 원룸과 PC방을 전전하다 돈이 떨어지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



예수병원 정관변경 취소하라

9일 전북인권선교협의회 등 목회자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예수병원의 불법 정관변경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절도형 보이스피싱 20대 조선족 조직원 검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주를 받고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20대 조선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9일 중국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절도형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여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선족 장모(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께 군산시 백토로 A(81·여)씨의 집에 침입해 A씨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은행에서 찾아놓은 현금 1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이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네 통장이 잘

못됐으니 통장에 있는 예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하면 집에 직접 방문해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예금을 인출한 A씨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이 잘못돼 은행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며 주민센터로 유인한 뒤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은행에서 인출해 집안에 보관한 현금을 몽땅 훔쳐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훔쳐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송금 금액의 1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과 부산에서도 장씨 일당의 추가 범행을 확인, 피해금액도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절도와 결합된 형태로 교묘히 수법을 바꿔나가고 있어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신종 '냉장고 보이스피싱'로 불리는 절도형 보이스피싱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도 김제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노인을 속여 금품을 훔쳐려 한 조선족 최모(28)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선족 최씨는 지난달 14일 김제에서 사는 B(79)씨에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현금을 모두 인출해 냉장고에 보관하면 경찰이 안전하게 처리하겠다"고 보이스피싱을 시도했다. /인진수 기자

## 전북경찰, 헬기 띄워 고속도 교통관리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방홍)는 9일 경찰 항공대 헬기와 고속도로 순찰차가 협동으로 입체적 교통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집중 순찰했다.

이날 순찰은 주요 관공지 주변 인터체인지와 톨게이트 등 차량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의 교통상황을 점검하고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한 긴급출동 등 비상상황을 가정해 항공 순찰도 이뤄졌다.

또한 고속도로 교통 흐름 지·정체 구간과 사고 다발 예상지역인 관내 터널 100여개 구간 사고발생 시 교통정체 해소 방안 등을 모색했다.

방홍 대장은 "이번 항공순찰은 고속도로 순찰차와 무선교신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 완산소방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집중관리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제태환)는 9일 전주시 교통 승압마을에서 의용소방대원과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없는 안전마을 관리 행사를 가졌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완산소방서가 지난 2010년부터 고지대와 소방차량 진입곤란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려운 마을 24곳을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날 화재 없는 안전마을 관리에 나

선 소방대원들은 지난해 기증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주택화재 예방교육과 함께 생활 속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제태환 완산소방서장은 "주택화재는 위험성 높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중요하다"며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완산소방서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 군산 성산면에 멸종위기2급 매화마름·물고사리 서식

군산시 성산면 일대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 매화마름과 물고사리 집단자생지가 확인돼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군산시 성산면 논습지 약 4만㎡ 면적에서 멸종위기2급 식물인 매화마름과 물고사리 집단서식지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매화마름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경기도, 충청지역 등 서해안과 서해섬지역 일대의 습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식물로 강화도 초지리 매화마름 서식지는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물고사리 또한 멸종위기 2급식물로 충남 서천지역이 북방한계선으로 알려져 있는 남방계 습지식물이다.

군산 성산면에서 처음 발견한 양광희씨는 "멸종위기종으로 서해안 일부 지역에만 자생하는 매화마름과 남방계 식물인 물고사리가 함께 서식하는 곳은 지금까지 군산지역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술적 연구와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강철새조망대 인근에서 매화마름과 물고사리 집단서식지가 확인됨에 따라 생태관광과 교육적 가치도 주목되고 있다. /김영재 기자



군산 성산면 논습지 서식 물고사리.

##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